

미얀마 Myanmar

# 흘라카잉

HLAKHAING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킨 감사의 은인들”

귀국해서 유리공장을 차리는 게 꿈인 미얀마의 한 가장.

그러다 일터에서 손을 크게 다쳐 꿈과 삶이 무너진 줄 알았다고 한다.

부상으로 좌절해 있던 시기에 사장님과 부장님은 자기 걸을 떠나지 않았고,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안겼다고 한다.

고용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동행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우리 공장만큼 근로자를 생각해주고  
가족처럼 여기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부장님을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닌  
타국에서 만난 또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HLAKHAING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제 이름으로 유리공장을 차려서  
마을 사람들의 깨진 유리창을 모두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5년 간 이곳, 동양판유리에서 근무하며 사장님과 공장장님에게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 와중에 올해 3월 13일, 저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복층유리 단면에 실링을 하는 기계를 청소하다가 손이 빨려 들어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에 의해 빨리 병원에 실려갈 수 있었는데  
가는 길에 사모님과 부장님이 계속 저를 안심시켜주려 노력하셨고  
행여나 고정된 손이 흔들릴 까봐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수술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됐고 다행히 성공해서 치료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내내 제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에 자책했습니다.  
상처보다 저만 기다리는 아내와 딸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장님과 사모님은 자책하고 있는 저를  
지극정성 간호해주고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두 분이 회사와 병원에 오가며 제 경과를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의학 용어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정도 호전되어 퇴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손으로는 예전만큼 유리재단과 운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산재 보험금만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업장 옮길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과 사모님이 일을 안 하더라도 고향으로 보낼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줄 테니 회복에 전념하고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꼭 참아왔던, 가장으로서 홀로 단단해야만 했던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생각나  
한국 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의지할 데도, 사람도 없이 홀로 덩그러니 놓인 것만 같았는데  
이 회사에서 여러 은인을 만나고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에 전문인력비자(E-7-4)로 변경하여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자 전환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부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일인 것처럼 퇴근 후 기숙사로 찾아와  
1~2시간정도 한국어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34점의 낮은 점수로 실패했던 제 첫 시험과 비교해

87점의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장 내 팀장으로서 주로 신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휘감독과 기술전수를 하고,  
주말엔 부장님과 함께 한국어 강사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국에 온 고향 친구들과 회사 이야기를 주로 하곤 하지만

우리 공장만큼 근로자를 생각해주고 가족처럼 여겨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과 사모님, 부장님을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닌 타국에서 만난  
또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분들이 미얀마로 여행 오시게 되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를 자식처럼 아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 본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수기 사례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가공되었습니다.